

| Bi-Weekly |

신영 ESG

“ 다시 증가하는 화석 연료 금융... 미국&일본 vs 유럽 ”

Contents

ESG essay

신영's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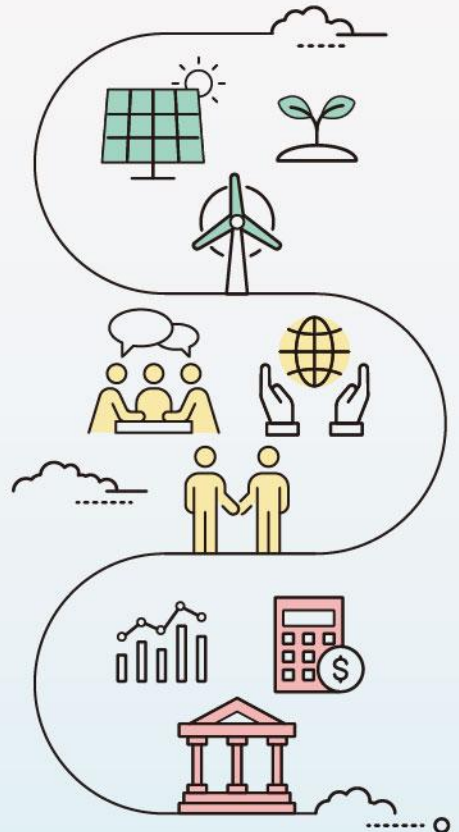
ESG 탐방 노트

삼성물산

ESG ETF 따라잡기

Matthews Emerging Markets Sustainable
Future Active ETF (EMSF)

ESG News Clipping



다시 증가하는 화석 연료 금융... 미국&일본 vs 유럽

RAN, 기후 혼돈 금융 보고서 2026 발표

RAN, BOCC 2026 보고서 발표: 지난 해 미국과 일본 은행들은 화석 연료 관련 금융 지원을 크게 늘린 반면, 유럽 은행들은 줄이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임

최근 FT는 열대우림 행동 네트워크(Rainforest Action Network, 이하 RAN)의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해 미국과 일본 은행들은 화석 연료 관련 금융 지원을 크게 늘린 반면, 유럽 은행들은 줄이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함. RAN은 글로벌 기업의 환경 파괴를 막고 원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국제 환경 비영리 단체(NGO)로서 공개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17년째 발표한 ‘기후 혼돈 금융 보고서(Banking on Climate Chaos)’는 글로벌 대형 은행들의 화석연료 금융 지원 실태를 추적하는 권위 있는 환경·금융 분석 보고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BOCC2026에 따르면 세계 65대 은행 중 거의 3분의 2가 화석 에너지 시스템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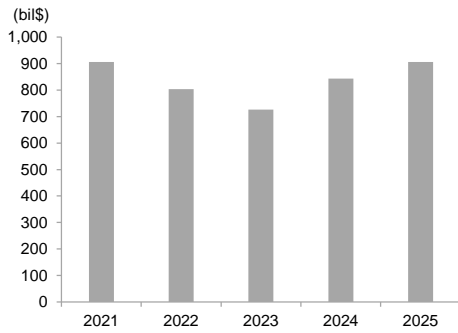
이번에 발표된 ‘Banking on Climate Chaos_Fossil Fuel Finance Report 2026, 이후BOCC2026’에 따르면 수많은 글로벌 주요 은행들이 화석 연료 관련 투자를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65대 은행 중 거의 3분의 2가 여전히 취약하고 불안정한 화석 에너지 시스템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세계 65대 은행 중 3분의 1 이상(26개)이 직전 년도 대비 화석 연료 관련 금융 투자를 줄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주로 일부 유럽 은행과 캐나다 은행들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나머지 39개 은행은 반대로 투자 규모를 늘렸고, 미국, 일본, 중국 은행들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음.

세계 65대 은행은 2025년 화석 연료 관련 기업에 총 9,06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정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7.6% 증가한 규모임

BOCC2026에 따르면 세계 65대 은행은 2025년 화석 연료 관련 기업에 총 9,06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정했는데, 이는 2024년 대비 640억 달러(7.6%) 증가한 수치임. 이러한 증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려는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1년 Net-Zero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인 2021년 이후에도 전 세계 은행들은 화석 연료 관련 기업에 4조 2천억 달러 이상을 지원함. 이 중 2.1조 달러는 사업 확장을 위한 화석 연료 기업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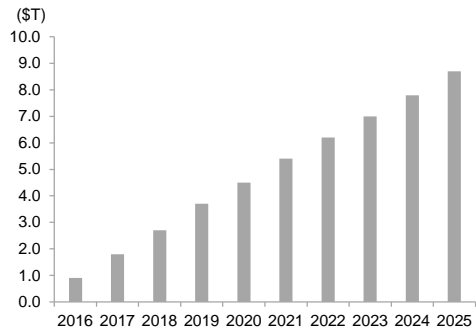
특히 상위 65개 은행은 2025년까지 화석 연료 개발 확장에 참여하는 기업에 5,08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정했는데, 이는 2024년 대비 1,080억 달러, 즉 단 1년 만에 약 27% 증가한 수치임. 이러한 확장 자금 지원은 향후 수십 년간의 탄소 배출, 지역 오염, 공급 충격, 좌초 자산 위험을 고착화시키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도표 1. 2021~25 65대 은행의 화석 연료 금융 규모 추이



자료: RAN,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65대 은행의 화석 연료 금융 규모 누적 추이



자료: RAN,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소수 은행이 화석연료 금융을 주도함 → 더티 더즌(The Dirty Dozen)이라 칭하는 상위 12개 은행이 2025년까지 전체 은행 화석 연료 거래의 39%를 차지

이러한 자본의 상당 부분이 이제 소수의 은행을 통해 집중되고 있음. 65대 은행 중 26개 은행이 지원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융 규모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문제가 얼마나 소수의 은행에 집중되었는지를 깨닫게 함. 소수의 은행들이 전 세계적인 추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임. RAN이 보고서에서 ‘더티 더즌(The Dirty Dozen)’이라 칭하는 상위 12개 은행이 2025년까지 전체 은행 화석 연료 거래의 거의 3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 65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약 2,000개 은행은 약 26%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됨.

세계 최대 화석 연료 금융기관 Top3는 미국의 JP모건 체이스(2021년 이후 4.3%), 일본의 MUFG는 (3.7%), 미국의 시티그룹(3.6%) 순

RAN에 따르면 세계 최대 화석 연료 금융기관은 미국의 JP모건 체이스이며 2021년 이후 전체 은행 화석 연료 금융의 4.3%를, 뒤를 이어 일본의 MUFG는 3.7%를, 미국의 시티그룹은 3.6%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남. 전체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Truist, PNC, Scotiabank, CIBC 등 일부 중형 은행들은 자산 대비 화석 연료 관련 익스포저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65대 은행 중 국내 은행으로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KB금융의 경우 2025년 한 해 동안 18억 달러를 지원해 5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에도 화석 연료 금융이 직전 년도 대비 증가한 은행 중 한 곳으로 나타남.

도표 3. The Dirty Dozen 2025

Rank	Bank	2025 (bil\$)	비중(%)
1	JPMorgan Chase	58.2	4.7%
2	Bank of America	47.3	3.8%
3	Mitsubishi UFJ Financial	47.0	3.8%
4	Mizuho Financial	46.5	3.8%
5	Citigroup	45.3	3.7%
6	Wells Fargo	42.5	3.4%
7	Royal Bank of Canada	36.6	3.0%
8	Barclays	34.1	2.8%
9	SMBC Group	31.0	2.5%
10	Morgan Stanley	29.4	2.4%
11	Goldman Sachs	28.9	2.3%
12	Toronto-Dominion Bank	27.5	2.2%
	Total	474.3	38.4%

자료: RAN,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The Dirty Dozen 2021~2025

Rank	Bank	'21~'25(bil\$)	비중(%)
1	JPMorgan Chase	248.5	4.3%
2	Mitsubishi UFJ Financial	211.3	3.7%
3	Citigroup	206.9	3.6%
4	Bank of America	205.3	3.6%
5	Mizuho Financial	204.9	3.6%
6	Wells Fargo	191.0	3.3%
7	Royal Bank of Canada	173.4	3.0%
8	SMBC Group	146.1	2.5%
9	Barclays	138.3	2.4%
10	Scotiabank	136.9	2.4%
11	Toronto-Dominion Bank	127.4	2.2%
12	Goldman Sachs	113.3	2.0%
	Total	2,103.3	36.6%

자료: RAN,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대출 기관의 수 감소뿐 아니라 차입자의 수 감소로 인해 소위 집중화 현상을 보임 → 거래 주체(은행)와 거래 대상(화석 연료 기업) 모두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시스템은 더욱 취약해짐

은행 부문 곳곳에서 정책 후퇴가 나타나는 가운데, 세계 65대 은행 중 26곳이 2025년까지 화석 연료 관련 금융 지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함 → 특히 유럽 은행들이 주도했는데 BNP 파리바는 화석 연료 관련 거래를 28% 줄였고, UBS는 36% 줄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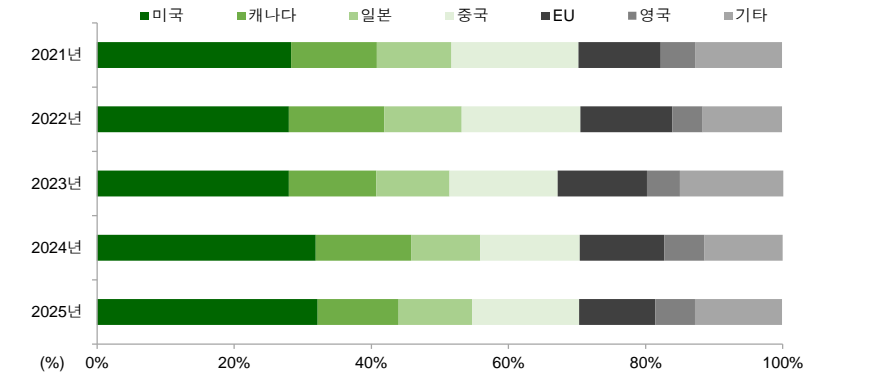
전 세계 은행의 화석 연료 금융 지원의 87%가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 영국, EU 등의 금융 중심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은행 부문의 집중 현상은 전체 문제 상황의 절반에 불과함. RAN의 보고서에 따르면 단순히 대출 기관의 수 감소뿐 아니라 차입자의 수 감소로 인해 소위 집중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임. RAN에 따르면 소수의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점점 더 많은 화석 연료 관련 금융을 소수의 석유, 가스, 석탄 기업에 쏟아 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1년 이후 단 10개의 화석 연료 기업이 전체 화석 연료 금융의 약 13%에 해당하는 7,180억 달러를 흡수한 것으로 나타남. BOCC2026에 언급된 65개 은행은 2024년과 비교하여 파이프라인 운송 및 저장 같은 미드스트림 부문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84% 늘렸으며, 액화 천연가스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이었음. 이처럼 거래 주체(은행)와 거래 대상(화석 연료 기업) 모두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시스템은 더욱 취약해졌다고 판단됨. 이는 점점 더 소수의 기업들이 공급 및 가격을 결정하게 되고 이는 에너지 비용 상승과 변동성 심화로 이어져, 에너지 소비 여력이 가장 약한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임.

RAN에 따르면 2021년 글래스고에서 열린 UN COP26 기후 정상회의에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기후 위험 감소를 위한 서약에 서명한 직후인 2022년과 2023년에는 자금 조달이 감소했다가, 2024년~2025년에는 은행들이 일부 화석 연료 관련 대출 제한 정책을 철회하면서 관련 거래 건수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정치적 변화 이후 북미 은행 15곳 중 12곳이 더 이상 '의미 있는 화석 연료 관련 약정'을 맺고 있지 않음. 이처럼 은행 부문 곳곳에서 정책 후퇴가 나타나는 가운데, 세계 65대 은행 중 26곳이 2025년까지 화석 연료 관련 금융 지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2024년의 23곳에서 증가한 수치임. 특히 유럽 은행들이 석탄, 석유, 가스 관련 자금 지원을 줄이는 데 가장 큰 진전을 보였는데, 이는 화석 연료 금융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에 나서고 있음을 시사함. BNP 파리바는 화석 연료 관련 거래를 28% 줄였고, UBS는 36% 줄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전 세계 은행의 화석 연료 금융 지원은 거의 대부분 6개의 금융 중심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약 2,000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BOCC+ 데이터 세트에서 화석 연료 관련 거래의 87%가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 영국, EU 등의 6곳에서 발생했음. 모든 국가가 화석 연료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화석 연료 관련 은행 금융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할 책임은 모든 국가에 똑같이 있는 것은 아님. 진정한 시스템적 변화는 바로 이 '빅 6' 금융 중심지에서의 입법 및 정책 조치에 달려 있는 것임. RAN은 모든 관할 지역에서 진전이 가능하고 필요하지만, 특히 이 6개 관할 지역의 은행, 입법자 및 규제 기관은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엄중한 기회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

도표 5. '빅 6' 국가(금융중심지)의 화석 연료 금융 지원 규모 비중 추이



자료: RAN,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전 세계 은행의 화석 연료 금융 지원의 87%가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 영국, EU 등의 금융 중심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2020년대에 발생한 두 가지 에너지 충격,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은 화석 연료가 이제 에너지 안보의 원천이 아니라 불안정의 원천임을 보여주는 사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정책 입안자들은 화석 에너지 불안정의 새로운 시대에 적극적인 선택을 하고 있음. RAN은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화석 연료 확장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고, 화석 연료 개발업체들이 채권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도록 돕고,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소수의 기업에 대출을 집중시키고, 이제는 더 저렴하고 안전한 대안인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줄임으로써 에너지 시스템을 더욱 비싸고, 취약하며, 불평등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RAN은 모든 화석 연료 관련 금융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이며, 검증된 재생 에너지 대안에 자본을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 특히 '빅 6' 국가들의 정책 입안자들은 화석 연료 금융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요구

하지만 RAN은 이처럼 집중된 시스템이지만, 동시에 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희망을 드러냄. 이제는 전 세계 전력 수요 증가분이 재생 에너지로 상당 부분 충족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명한 선택을 요구함. RAN은 “은행들은 화석 연료 확장에 대한 자금 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화석 연료 관련 금융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이며, 검증된 재생 에너지 대안에 자본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 특히 화석 연료 금융의 주요 중심지인 '빅 6' 국가들의 정책 입안자들은 화석 연료와 이 고위험 부문의 기반이 되는 금융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함.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로 녹색대 전환 정책을 진행중이며 금융위의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도 발표됨 → 향후 화석 연료 금융은 점점 감소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금융 지원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로 녹색대 전환 (Green Transformation, GX) 정책을 추진중인데, 주요 추진 과제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민관합동 K-GX 추진,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망 개편 등임. 또한 금융위 발표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총 790조원 규모로 기후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고탄소 업종의 실질적 감축 투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을 도입을 발표함 이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관련 금융 지원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화석 연료 관련 금융은 점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ESG 이벤트 & 신영's View

美 핵심광물법 통과, "중국산 공급망 원천 봉쇄"…中 태양광·배터리 2027년 퇴출

- 미국 하원이 국무부 내 '에너지안보·외교국' 신설을 골자로 한 '도미니스법'을 통과시키며,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보 의제로 격상하고 동맹국 중심의 재편 속도를 높임
- 미국 국방부가 트리나솔라, EVE에너지 등 태양광·배터리 기업과 알리바바, 바이두 등 중국 주요 빅테크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해 2027년부터 국방 및 공공 조달 시장에서 원천 배제함

Comments

-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의 미국의 중국 공급망 배제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 높으며 이는 국내 기업들의 반사 수혜로 이어질 수 있음
- 전주 미국은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을 공개함
- 표면적으로는 미 국방부와의 직접 계약 및 3자를 통한 우회 조달을 제한하였지만 미국 공공 인프라 및 민간 시장으로 영향이 이어질 가능성 있음

- Analyst 박진수

美트럼프 알래스카 시추권 경매 흥행 실패… 고유가에도 대형 석유사 외면

- 트럼프 행정부가 재개한 알래스카 북극 국립야생보호구역(ANWR)의 석유 시추권 경매에 단 2개의 기업만이 참가하며 부진. 이번 경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알래스카 자원 개발 확대' 정책의 첫번째 시험대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판단
- 이번 경매는 조건만 놓고 보면 석유업계에 우호적인 환경이었으나, 전체의 10% 정도만 실제 입대 성사. 응찰한 곳 역시 알래스카 주정부 소유 기업과 현지 소규모 가스사 두 곳뿐

Comments

- 대형 석유회사들이 응찰하지 않은 배경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인프라 부족. 또한, 해당 지역은 생산 조건 자체가 까롭고 새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음
- 이란 전쟁으로 인해 고유가가 촉발되었으나, 이는 일시적이며 UAE의 OPEC 탈퇴, 글로벌 정유 업체들의 원유 조달 지역 다변화 등 영향으로 종전 시 지금과 같은 고유가 유지되기 어려울 전망

- Analyst 신홍주

재난 위험도 투자자산 됐다…월가, 기후재난 전문가 쟁탈전

- 왜 지금인가…자연재해 손실, 2년 연속 1000억 달러 돌파
- 보험사의 영역이던 재난 모델링, 월가로 확산
- 재해채권은 허리케인이나 지진이 발생하면 투자자가 원금 손실을 부담하는 대신 높은 수익을 얻는 금융상품 → 재난 위험도 투자자산이 됐다
- 인재 쟁탈전의 배경에는 재해채권(Catastrophe Bond, Cat Bond) 시장의 급성장이 큰 영향을 미침 → AI의 재난 모델링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AI를 통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

Comments

- 재해채권 시장 잔액은 2026년 3월말 기준 639억 달러로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 → 2020년 말과 비교하면 75% 이상 증가한 규모로 높은 성장세를 보임
- 시장 확대와 함께 투자자들이 분석하는 위험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음 → 허리케인과 산불, 홍수를 넘어 사이버 공격과 사회 불안, 전쟁 같은 저확률·고충격 이벤트까지 투자 판단에 반영하려는 움직임 확산 중
- 재해채권을 포함한 ILS 시장 급성장 중 → 전통적인 주식 채권과 상관관계 낮아 새로운 대체투자처로 부각 → 기후 위기로 인해 급성장 중(연평균 +10% 성장)

-Analyst 오광영

삼성물산(028260.KS)

매수(TP 600,000원)

에너지 전환 신사업

현재주가(6/12) 432,000원

ESG 등급 현황	ESG 등급 변화 (KCGS)	Key Data (기준일: 2026. 06. 12)
(평가기관) ESG E S G KCGS A A A A+ Bloomberg 85.10 46.00 94.30 59.20 주: KCGS :S~D 7등급 Bloomberg: 100 만점 기준		시가총액(억원) 700,564 배당수익률(26F,%) 0.9 외국인지분율(%) 31.1 주요주주 지분율(%) 이재용 외 11 인 38.1 % 케이씨씨 10. % Company Performance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0.7 54.0 69.4 157.0 KOSPI대비상대수익률 -6.6 5.8 -13.1 -7.6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구 분	단위	2023	2024	구 분	단위	2023	2024	구 분	내 용
온실가스 배출량	천tCO2eq	203	195	LTIR	%	0.13	0.19	주주총회	1 주전 홈페이지 공고
폐기물 발생량	천톤	844	604	기간제 근로자 비율	%	34.5	32.8	전자투표제	실시
환경관련 투자비	억원	270	368	여성 근로자 비율	%	21.7	22.0	집중투표제	실시
환경경영 인증	ISO 14001, ISO 50001 획득			사회 공헌지출	억원	미기재	미기재	배당 실시 배당기준일	25년 800 원 배당 지급
환경경영 조직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실시 중			이사회 운영 실적	(2024년 기준) 8 회

ESG 관련 최신 활동

삼성물산, 1년만에 종합 A+등급 회복, 건설사 중 지배구조 A+ 유일 (조선비즈, 26.04.29)	삼성물산, 전 노동장관 사외이사로 선임 (연합뉴스, 26.03.20)	ESG위원회 명칭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변경 (블로터, 26.03.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성물산, 한국ESG기준원(KCGS)의 2025년 ESG등급 평가에서 종합A등급 회복, 지배구조 부문이 A에서 A+로 한 단계 상승 환경(E)과 사회(S) 부문은 각각 A와 A+ 삼성물산은 협력사 ESG 점검률 100%를 기록했고, 안전·환경·노동·컴플라이언스 항목을 포함한 점검 체계를 구축, 설부문 리스크와 직접 연관된 협력사·현장 단위 준법경영 강화를 통해 등급 상향이 가능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장관을 사외이사로 선임 현 정부 들어 중대 산업 재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전관 선임을 통한 대응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에 국한되지 않은, 기업의 미래 가치를 설계한다는 의미에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명칭 변경 2021년 이사회 산하 거버넌스위원회 ESG위원회로 확대 개편, 이후 2022년 4월 내부거래위원회를 ESG위원회로 통합,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 그룹 지주사로서의 전략적 기능 한층 강화할 전망

ESG history

연혁	내용
2010년	[E] 캐나다 온타리오 풍력발전 수주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진출
2014년	[ESG]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DJSI World 편입
2016년	[G] 거버넌스위원회, 기업지배구조현장 제정안 보고, 주주권익보호 담당위원 활동 등 지배구조 운영 체계 강화
2020년	[G] 2020~2023년 3개년 주주환원 정책 발표
2021년	[E] 청정수소, 청정암모니아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2년	[E] 미국 뉴스케일파워에 7,000만달러 투자 및 글로벌 SMR 사업 공동 진출 논의
2023년	[G] 2023~2025년 주주환원 정책 발표 [E] 루마니아 SMR 사업 참여, 뉴스케일 지분투자 기반으로 글로벌 SMR 사업 확대 협력 [ESG]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 통합 A+등급 획득, DJSI 7년 연속 월드지수 편입
2026년	[G] ESG위원회를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명칭 변경 [G] 2026~2028년 주주환원 정책 발표 [E] 호주 퀸즐랜드 태양광 300MW-BESS 150MW/300MWh 프로젝트 개발 후 매각

ESG 전략 - 에너지 전환 포트폴리오와 지배구조 개선으로 진화

삼성물산의 ESG 전략은 초기 사회공헌·안전관리 중심의 대응에서 점차 에너지 전환 포트폴리오와 지배구조 개선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 2020년 국내 비금융사 최초의 탈석탄 선언을 기점으로 석탄 관련 신규 투자·시공·트레이딩을 중단했고, 이후 신재생에너지, 수소·암모니아, SMR, 태양광·BESS 등 에너지 전환 사업을 확대하며 ESG를 새로운 성장 포트폴리오와 연결하고 있음. 동시에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재무 리스크, 중장기 전략, 투자 의사결정을 통합 관리하고,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병행하면서 지배구조 개선도 강화하고 있음

에너지 전환 포트폴리오의 정략적 검증도 필요

다만 신재생·수소·SMR·BESS 등 에너지 전환 포트폴리오가 실제 매출과 이익, 자본수익률로 얼마나 연결되는지에 대한 정략적 검증이 필요한 단계로 사업 성과와 로드맵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공유가 필요함. 또한 동사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축으로 인식되는 만큼 일반주주와 지배주주 간 이행 정렬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하는 상황으로 관련한 소통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함

도표 1. 삼성물산 ESG 위원회 주요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2025.01.21	1. '24년 배당 및 자기주식 소각(안) 심의의 건 2. 정관 변경(안) 심의의 건	심의 심의
2025.04.29	1. '25년 운영계획 보고의 건	보고
2025.06.26	1. 대표 CSR 프로그램 추진 보고의 건 2. '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보고의 건	보고 보고
2025.07.28	1. 상반기 주요 진행사항 보고의 건 2. 차 3년 중기계획 수립 진행현황 보고의 건	보고 보고
2025.10.27	1. 대외 후원금 승인의 건 2. KPI 대시보드 보고의 건	가결 보고
2025.12.22	3. 지속가능성 관리체계 개선(안) 보고의 건 1. 퇴직연금 가입 승인의 건	보고 가결

자료: 삼성물산,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Matthews Emerging Markets Sustainable Future Active ETF (EMSF)

Key Facts		Top Holdings	(기준일: 2026.06.12)	NAV와 운용자산
상장일	2023/09/21	TSMC	8.6%	
기초지수		SAMSUNG ELECTRONICS CO	7.7%	
BM지수	MSCI Emerging Markets Index	SK SQUARE CO	6.9%	
구성종목수	58	MICRON TECHNOLOGY, INC.	5.2%	
순자산총액 (백만달러)	44.48	ELITE MATERIAL CO	4.9%	
시장가격(USD)	40.79	EUGENE TECHNOLOGY CO	4.2%	
NAV(USD)	39.44	BANDHAN BANK, .	4.1%	
총보수(%)	0.79	MARICO, .	3.0%	
운용사	Matthews Asia	LEGEND BIOTECH CORP. ADR	2.8%	
		HD HYUNDAI ELECTRIC CO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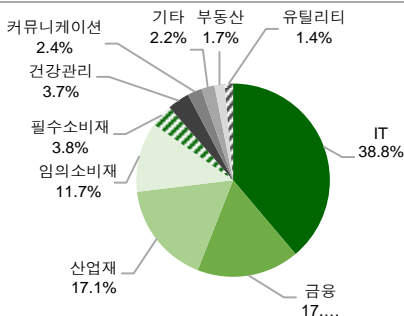
ETF 개요

Matthews Emerging Markets Sustainable Future Active ETF(EMSF)는 2023년 9월 상장된 ETF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선별된 신흥 시장 기업들로 구성된 액티브 ETF임. EMSF는 신흥 시장(프론티어 국가 포함)의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ETF임. 모든 시가총액 규모의 기업에 투자하지만, 특히 BM대비 소형주의 투자 비중이 높은 편임. EMSF는 우선 재무제표 정보, 기업 규모, 현금 흐름 안정성, 재무 건전성 등의 기본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함. 이후 제3자 데이터와 운용사의 자체 연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ESG 기준을 적용하고, 글로벌 환경 및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을 발굴하여 투자함. 또한 담배, 무기, 화석 연료 등 논란이 되는 사업은 배제하는 ESG 스크리닝 기준을 적용함. 또한 EMSF는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투자 대상 기업과 지속 가능성 및 지배구조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주주 권리를 행사하며, ESG 정보 공개를 장려하고 있음.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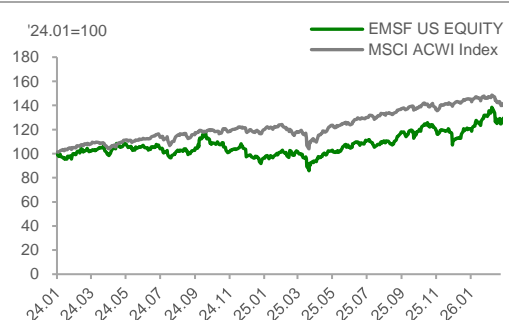
EMSF는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선별되고 특정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업 활동에 연루된 기업을 제외한 신흥국 기업들로 구성된 ETF로 3월말 기준 대만(21.5%), 한국(19.2%), 인도(19%), 중국/홍콩(17.6%) 등 아시아 국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흥국 ETF임. 신흥국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투자자 중 ESG 관행이 우수하고 논란이 있는 산업에 대한 노출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 대안으로 검토해 볼 것을 추천.

EMSF의 업종 구성 비중



자료: Matthews Asia,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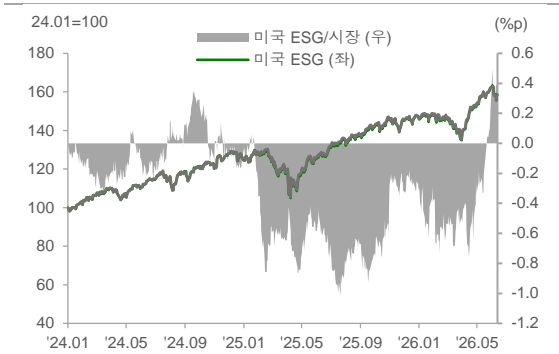
시장과 성과 비교 (MSCI World와 비교)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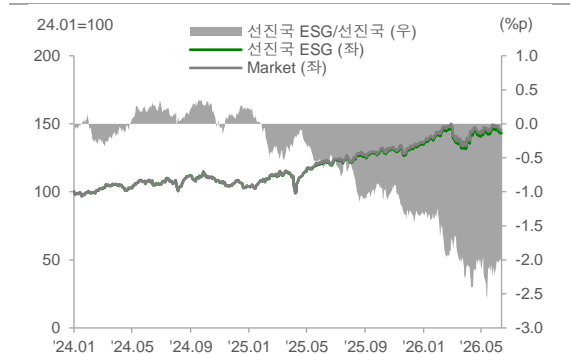
ESG 관련 DATA - 주요 지수 및 ETF의 성과 흐름

미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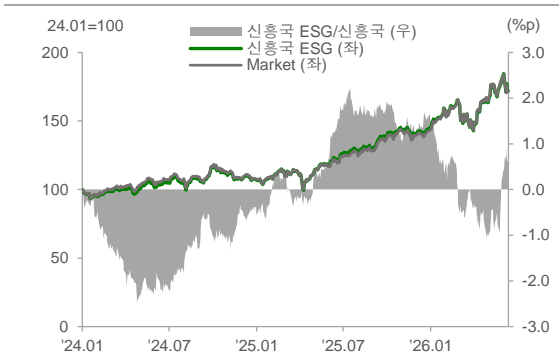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선진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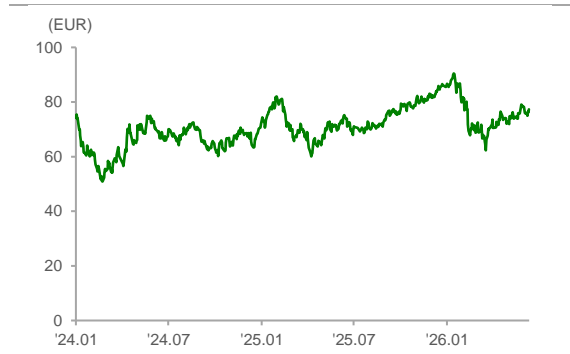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신흥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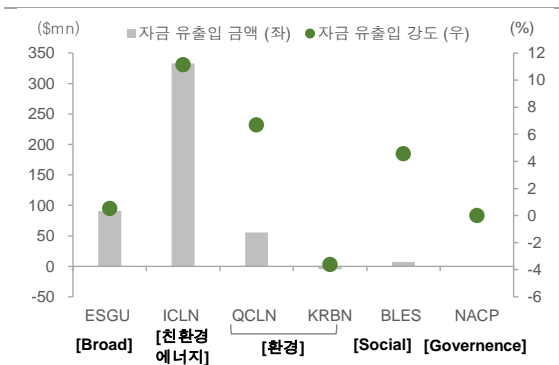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탄소배출권 가격 흐름 (EU 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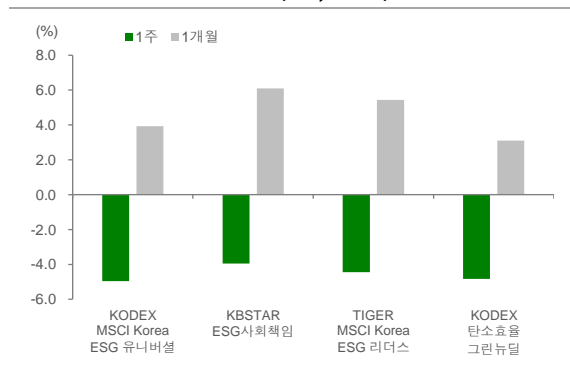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미국 상장 ESG ETF 유형별 1개월 자금 유출입 현황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국내 상장 ESG ETF들 성과 (1주, 1개월)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ESG 관련 DATA - 미국 상장 ESG ETF 현황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AUM (백만달러)	ETF 개수	AUM 비중	ETF 비중	
1	Broad	94,137	60	74.8%	61.9%
2	친환경에너지/환경 기업	18,416	13	14.6%	13.4%
3	탄소효율 (Environment)	6,860	13	5.5%	13.4%
4	Social	5,877	5	4.7%	5.2%
5	Governance	450	3	0.4%	3.1%
6	기타	50	3	0.0%	3.1%
ESG 전체		125,790	97	100%	1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주1: 미국 상장 ETF들을 전체 유니버스로, ETF 상품 개요 (description)를 기반으로 ESG 관련 키워드 검색 (ESG, Social, Climate, Carbon, Fossil, Environment, Clean, Solar, Green, Renewable, Sustain)을 통해 총 124개를 ESG 전략 기반의 ETF로 판단하였음

주2: 향후 키워드는 변경, 추가될 수 있으며, 정성적 판단 또한 ETF 분류에 반영하였음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개요

구분	ETF	ETF	상장일	개요
Broad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2016-12-02	MSCI USA ESG FOCUS 지수를 추적하는 미국 최대의 ESG ETF
	ESGV	Vanguard ESG US Stock ETF	2018-09-20	FTSE USA All Cap Choice 지수를 추적
	SUSL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2019-05-09	MSCI USA ESG LEADERS 지수를 추적
	NULV	Nuveen ESG Large-Cap Value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Large-Cap Value 지수를 추적
	NUSC	Nuveen ESG Small-Cap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Small-Cap 지수 추적
	ESGE	iShares Inc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	2016-06-30	신흥국 투자 ESG ETF
	ESGD	iShares Trust iShares ESG Aware MSCI EAFE ETF	2016-06-30	북미 제외 선진국 ESG ETF
	EAGG	iShares ESG Aware US Aggregate Bond ETF	2018-10-23	채권 ESG ETF 중 가장 큰 규모의 ETF
친환경에너지/ 환경 기업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2008-06-25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
	TAN	Invesco Solar ETF	2008-04-15	태양광 관련 기업들로 구성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2007-02-14	미국 상장 기업 중 클린에너지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
Environment	SPYX	SPDR S&P 500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2015-12-01	S&P500 기업 중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비축하지 않는 기업들에 투자
	CRBN	iShares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2014-12-09	선진국, 신흥국의 리지캡, 미들캡 중, 매출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거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들이 투자
	KRBN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	2020-07-30	탄소배출권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
Social	BLES	Inspire Global Hope ETF	2017-02-27	대형주 (시가총액 50억 달러) 중 성서적인 (Biblical) 측면에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부분을 측정하여 투자
Governance	SHE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	2016-03-08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임원과 이사회 구성하는 여성 비율을 고려, 상위 기업에 투자
	NACP	Impact Shares NAACP Minority Empowerment ETF	2018-07-18	소수 인종의 권익을 중시하는 기업들에 투자. 비영리의 ETF로 운용수익은 NAACP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에 기부됨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ESG 관련 DATA - 주요 ESG ETF의 성과와 자금 유출입

해외 -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ETF	운용규모 (\$mn)	수익률 (%)				자금 유출입 (\$mn)		자금 유출입 강도 (%)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6 YTD	1개월	2026 YTD
Broad	ESGU	17,192	0.16	0.57	11.61	8.25	91	329	0.5	1.9
	ESGV	13,035	0.31	0.55	13.15	8.01	47	223	0.4	1.7
	SUSL	1,129	0.04	-0.11	11.53	8.17	13	20	1.1	1.7
	NULV	2,102	-0.39	0.86	10.32	9.54	-1	-44	0.0	-2.1
	NUSC	1,248	2.22	3.82	13.39	10.13	-87	-173	-6.9	-13.9
	ESGE	6,770	3.14	2.13	18.08	22.70	-285	-87	-4.2	-1.3
	ESGD	11,618	2.23	1.61	7.47	7.98	30	-184	0.3	-1.6
	EAGG	4,849	0.64	0.19	-0.53	-1.01	113	505	2.3	10.4
친환경에너지/ 환경 기업	ICLN	2,989	-3.67	-3.28	12.06	24.30	333	629	11.1	21.0
	TAN	1,872	-3.77	0.70	13.31	29.95	104	568	5.6	30.4
Environment	QCLN	829	-1.31	-0.16	29.40	33.45	55	108	6.7	13.1
	SPYX	2,703	0.11	0.01	10.81	7.55	-2	20	-0.1	0.7
	CRBN	1,130	1.13	0.63	10.75	8.28	26	48	2.3	4.3
	KRBN	135	-0.40	2.39	15.04	-7.20	-5	-32	-3.6	-23.4
Social	BLES	155	0.44	0.87	7.22	9.82	7	9	4.6	6.0
Governance	SHE	321	0.38	1.21	18.09	16.79	3	-7	1.0	-2.1
	NACP	73	1.82	2.65	19.18	18.41	0	0	0.0	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국내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ETF	운용 규모 (억원)	수익률 (%)				자금 유출입 (억원)		자금 유출입 강도(%)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6 YTD	1개월	2026 YTD
KODEX MSCI Korea ESG유니버셜	222	-5.0	3.9	51.8	115.8	0.0	-29.8	0.0	-13.4
FOCUS ESG 리더스	82	-4.8	-2.7	22.0	44.1	0.0	-53.2	0.0	-65.0
KODEX 200ESG	2,035	-4.9	6.5	57.9	125.5	505.4	671.2	24.8	33.0
KBStar ESG 사회책임	5,710	-4.0	6.1	63.4	136.7	1,780.2	2,159.7	31.2	37.8
TIGER MSCI Korea ESG유니버셜	257	-5.2	5.2	57.6	125.5	0.0	0.0	0.0	0.0
TIGER MSCI Korea ESG리더스	188	-4.4	5.4	53.5	95.6	-28.7	-50.7	-15.3	-27.0
KODEX 탄소효율그린뉴딜	501	-4.8	3.1	40.4	96.2	-87.9	-140.7	-17.5	-28.1
TIGER 탄소효율그린뉴딜	248	-4.8	2.9	40.4	95.8	0.0	-18.5	0.0	-7.5
HANARO 탄소효율그린뉴딜	247	-4.8	3.2	41.0	96.9	0.0	0.0	0.0	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주: KRX 탄소효율그린뉴딜 지수 추종의 ETF들은모두 2021년 2월 4일 상장으로 2021년 YTD 자금 유출입은 상장 이후 흐름임

ESG News Clipping

기업 ESG 뉴스

E (환경)

[\(26.06.03\) 독일 자동차부품사 세플러의 변신...인공위성 휠 만든다-Impact-on](#)

세플러의 '전략적 야망 2035', 내연기관 넘어 우주·방위로
자동차 베어링 기술, 위성 '반작용 휠'로 재탄생

S (사회)

[\(26.06.04\) 메타에 60조원 벌금 요구...SNS 중독 소송, 주정부까지 가세-Impact-on](#)

메타에 60조원 청구...8월 재판 앞두고 압박 커져
소송 6000건 돌파...잠재 배상액 600조 원

[\(26.06.05\) 현대제철 58억달러 美 제철소, 비공개 협약 논란...지역사회 수용성 시험대-Impact-on](#)

현대제철-루이지애나 주 비공개 협약, 정보 공개 소송으로 확산...
"주민의 알 권리" 쟁점
환경단체, 공정 전환·안전규정 준수 요구...현대제철은 지역사회 기여 강조

[\(26.06.09\) '당장 출근하고 싶은 기업' 1위 SK하이닉스...카카오 8위로 밀려-ESG경제](#)

잡코리아, '2026 기업 선호도 리포트'...삼성전자 2위
5년전 1위 카카오 8위 vs SK하이닉스 5위→1위
IT·플랫폼 기업 퇴조...반도체, 제조기업 순위 상승

[\(26.06.10\) 美 핵심광물법 통과, '중국산 공급망 원천 봉쇄'...中 태양광·배터리 2027년 퇴출-Impact-on](#)

美 하원, 국무부 내 에너지안보국 신설 법안 초당적 통과
국방부, 알리바바·바이두 배터리·태양광 기업 블랙리스트 지정

[\(26.06.11\) 포스코, 인도네시아 니켈 공급망서 돌연사 잇따라-Impact-on](#)

위다 산업단지,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돌연사 잇따라...기업 측은 사건은폐
포스코·테슬라·CATL 해당 공급망 통해 니켈 조달...공급망 실사 리스크 현실화 우려

G (지배구조)

[\(26.06.01\) 엑손모빌, 144년 뉴저지 떠나 텍사스행... '소액주주 자동투표'가 뒤바꾼 주주총회-Impact-on](#)

법인 이전, 무엇이 달라지나
소액주주 자동투표의 역습...논란도 증폭
2024년 기후 주주제안 소송 이후, 확 줄어든 ESG 안건

[\(26.06.01\) 하림 김홍국 승부수...초신선 유통채널 '한국형 알다+다이치' 주목-ESG경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리뉴얼...통합 식품유통 플랫폼 구축
독일-일본에서 성공한 글로벌 유통 모델 벤치마킹 착수
초신선 식품 중심 근린형 슈퍼마켓 모델 새 대안으로 부상
NS마트 철수 이후 14년만의 재도전...'유통 실험' 성공할까

[\(26.06.02\) 중국 지분 15% 넘는 메르세데스 벤츠, 미국 판매 금지 위기-Impact-on](#)

중국차 차단 법안, 독일차에 불똥
불보는 예외 승인, 메르세데스는 법안 리스크
자동차 공급망 리스크, '중국산 부품'에서 '중국계 지분'으로 확대

[\(26.06.08\) SK·엔비디아, 이제는 AI 인프라 '핵심동맹'...차세대 메모리 공동 개발-ESG경제](#)

SK하이닉스, AI인프라·퍼스널 AI·피지컬 AI 등 신시장 진출
SK텔레콤, AI 전용 데이터센터 'AI 팩토리' 구축-아시아 확장
최태원 "엔비디아와 R&D 로드맵 공유...미래 AI 수요 협력"

정책 ESG 뉴스

ESG

[\(26.06.02\) 상법 개정발 증시 개혁 '성과'...공정경제·ESG에선 여전히 '미완'-ESG경제](#)

이재명 정부 1년 경제공약 평가...이행 완료 약 18%
 상법 개정으로 주주권익 강화...증시 신뢰 회복 기대
 플랫폼 규제·피해구제 지연...공정경제 입법 미완
 ESG 공시 최종안 지연...금산분리 완화 우려

E (환경)

[\(26.06.01\) 송총리 '역대급 폭염, 국민안전 위협...기후위기는 당면과제'-ESG경제](#)

기후변화 없어도 2030년 물 부족...기후 변화 반영시 부족량 8배
 중진공-기보, 탄소감축기술 투자설명회..."자금 확보 지원"

[\(26.06.03\) 영국, FTA 체결 뒤 CBAM 추진...인도 '보복 검토'-Impact-on](#)

영국, 철강 수입 규제 강화...CBAM도 2027년 시행
 인도 "무역 이익 훼손되면 상응 조치"
 EU 이어 영국까지...확산되는 탄소 통상 규제

[\(26.06.05\) 코카콜라·맥도날드 vs 이케아·베올리아...EU 포장재 규제 내전-Impact-on](#)

"규제 건드리지 마라"...재활용·포장재 공급망 200곳 몽쳤다
 코카콜라·맥도날드는 "8월 적용 미뤄달라"
 환경규제가 산업정책 됐다...EU 규제 완화 흐름에 역행한 기업들

[\(26.06.08\) 후쿠시마 이후 첫 건설 청사진...일본, 원전 14기 로드맵 공개-Impact-on](#)

2040년대 5기, 2050년대까지 최대 14기 교체
 AI·반도체가 바꾼 전력 수급 계산서
 "원전은 짓겠다는데 사람이 없다"

[\(26.06.09\) EU, 지중해를 청정에너지 벨트로...10월 투자 플랫폼 출범-Impact-on](#)

MENA 재생에너지 잠재력 2300GW...EU, 지중해 남부로 눈 돌린다
 신규 투자 플랫폼, 수소 회랑·전력망·청정기술 제조까지 포괄

[\(26.06.10\) EU, 해운·조선 '안보 자산'으로 격상...2035년 저탄소 선박 1만척 공급-Impact-on](#)

해운·조선, EU 경제안보 전략의 핵심 산업으로
 친환경·디지털 선박 1만척 목표...스마트 조선소 육성
 ETS 수익 활용 검토...해운 규제 체계도 재조정

[\(26.06.11\) 中 직구 공세에 칼 빼든 EU...'제품여권'으로 끝까지 추적-Impact-on](#)

전기기기·장난감·화장품 집중 적발...위험제품 관리 부담 커진 EU
 DPP 레지스트리 가동 임박...감독기관은 제품별 준수정보 확인
 EPA 3분기 발의...DPP 역할 더 커진다

G (지배구조)

[\(26.06.01\) 한국형 '거버넌스 스코어' 나온다...공정위, 기업 건전성 지수 도입-ESG경제](#)

총수 지분·내부거래·이사회 독립성까지 점수화
 재계, 사실상 '관계 지배구조 성적표' 도입 우려
 기업집단 정보 단일지표화...중합진단 체계 구축
 올해말 결과 도출...향후 감독·인센티브 연계 검토

[\(26.06.04\) 중국, 데이터·알고리즘도 영업비밀로...원격근무·해외협업까지 차단 나섰다-Impact-on](#)

데이터·알고리즘, '기업 기밀'로 명문화
 기술보호인가, 기술통제인가

일반 ESG 뉴스

E (환경)

[\(26.06.01\) 콩고, 리튬 로열티 3.5%→10%로..중국·미국 배터리 광물 '아프리카 전선' 본격화-Impact-on](#)

콩고, 코발트 이어 리튬도 '전략 자산'으로
미·중 경쟁 한복판에 선 마노노

[\(26.06.01\) 엔비디아 서버도 전기 없인 못 돈다...AI 병목, GPU서 전력으로-Impact-on](#)

위원 "공급난 2028년까지"...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2030년 3배 전망
GPU 다음 병목은 전력 인프라
빅테크 1000조원 투자에도 공급 부족은 계속된다
전력망이 AI 성장 속도를 결정한다

[\(26.06.02\) 메타 전 CTO, 3800억 기후테크 펀드 조성...AI 인프라 기업에 베풀-Impact-on](#)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에너지-전력망 스타트업에 자금 몰려
위축된 기후테크 시장의 생존 공식..."기존 석유 화학제품보다 저렴하게"

[\(26.06.04\) 그린스틸의 숨은 변수 '망간'...佛에라메트, 공급망 탈탄소화 가이드라인 발간-Impact-on](#)

그린스틸 전환, 커지는 망간합금 탄소 발자국
SBTi·EU 규제 사각지대...공급망 왜곡 우려
망간 공급망 해법은 '측정·추적·감축'

[\(26.06.08\) 에너지 전환은 이제 네거티브 그리니엄? ...아문디·L&G가 본 투자지형 변화-Impact-on](#)

"전환은 언제의 문제이지, 일어날지의 문제가 아니다"
아문디 '네거티브 그리니엄'...친환경이 더 비싼 시대가 끝나나

[\(26.06.10\) GM도 포드 이어 AI 데이터센터 ESS사업 본격 진출-Impact-on](#)

전기차 배터리에서 데이터센터 배터리로
LG엔솔-레드우드까지 연결된 GM의 ESS 전략
전기차 부진의 출구, 새 전력 인프라 사업

[\(26.06.11\) 탄소규제 풀려던 EU...12조유로 투자자들 "시장 흔들지 마라"-Impact-on](#)

ETS, 산업정책으로 바뀌나
무상할당 연장, 국제선 항공·폐기물 소각까지 검토
산업계는 숨통, 투자자는 반발

S (사회)

[\(26.06.02\) 여성임원 늘었지만 사내이사는 되레 감소... '여초'기업 승진문 더 좁아-ESG경제](#)

리더스인덱스, 500대기업 분석...사내이사 비중은 13.5%로 줄어
여성임원 비중 8.2%로 늘었지만 사외이사만 확대, 구조적 한계
1000명당 임원 승진 남성 '14명 vs 3명' 여성... '유리천장' 여전
여성직원 많은 기업 여성임원비율 0.2%...전체평균 0.3%보다 낮아

[\(26.06.05\) 일본, 감자칩은 흑백 봉지로, 바나나는 속성 못해...식품업계의 공급망 도미노-Impact-on](#)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나프타 공급망 차질, 나프타 부족이 산업 곳곳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
비료- 페르시아만, 세계 질소비료의 절반 책임져
연료·운송·포장재까지 동시에 충격

G (지배구조)

[\(26.06.09\) 일본 주총 뒤편 행동주의...올해 주주제안 139건, 경영진 퇴진 요구도 급증-Impact-on](#)

자사주 매입에서 경영진 책임 추궁으로
엘리트·오아시스 성과가 행동주의 자신감 키웠다
규제 완화와 거래소 압박 속 일본 국내 자산운용사도 가세

Compliance Notice

■ 투자등급

- 종목** **매수**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증가대비 목표주가 1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증가대비 ±10% 이내의 등락이 예상되는 경우
매도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증가대비 목표주가 -10% 이하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 산업**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높게 가져갈 것을 추천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추천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낮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발간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동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작성 담당자는 자료에 게재된 내용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의 괴리율은 감사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당사의 투자 의견 비율 고지]

당사의 투자 의견 비율			
기준일 (20260331)	매수 : 88.13%	중립 : 10.63%	매도 : 1.25%

[당사와의 이해관계 고지]

종목명	LP(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1%이상보유	계열사 관계여부	채무이행보증	자사주신탁 계약
	ELW	주식	주식선물	주식옵션				
삼성물산	-	-	-	-	-	-	-	-

